

사우디, Landbridge 철도건설 프로젝트

- 사우디철도공사(Saudi Railway Organization, SRO)는 최근 총연장 거리 1,100km에 달하며 사업규모가 미화 50억불에 달하는 사우디의 Landbridge 철도건설 프로젝트의 입찰결과를 금년 6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우디의 Landbridge 철도건설 프로젝트는 사우디 수도인 Riyadh에서 사우디의 홍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Jeddah항까지 연장 950km에 달하는 구간과 사우디의 산업도시인 Jubail에서 걸프연안의 최대 석유 수출 중심지인 Dammam을 연결하는 연장 115km의 구간을 합하여 총연장 약 1,100km에 달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서,
- 사우디 정부가 최근 6년간에 걸친 고유가에 기인하는 풍부한 자금력과 중동지역의 경제적인 호황에 힘입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 관광 및 산업개발 정책에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의 하나임.
- 현재 Landbridge 철도건설 프로젝트에는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쿠웨이트의 Agility사와 미국의 KBR, General Electric 컨소시엄 (금융주선은 사우디의 Al Rajhi Bank)
 - 사우디의 Binladin Group과 일본의 Mitsui, 인도의 Ircon International, 독일의 Siemens 컨소시엄 (금융주선은 Deutsche Bank와 Deutsche

Bahn)

- 사우디의 Al Muhaidib & Sons사와 **한국의 삼성건설** 컨소시엄 (금융주선은 BNP Paribas)
- Rajhi Investment사와 Mada Company for Industrial & Commercial Investment 및 캐나다의 SNC-Lavalin 컨소시엄 (금융주선은 사우디의 Samba Financial Group)

□ 사우디철도공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입찰에서는 입찰자가 제시하는 **금융조건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예정인 바, 사우디 정부의 자금 투입을 최소한으로 요청하면서 가장 좋은 조건의 금융주선을 제공하는 입찰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

※ 현재 참여 컨소시엄들이 제시한 사우디 정부의 자금 투입규모는 최소화 17억불에서 최대 43억불 규모로 알려지고 있음.

□ 아울러, 본 프로젝트에는 해당 **컨소시엄이 약 20%의 지분투자**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여타 부분은 사우디 정부 및 은행 차입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두바이사무소 제공】